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독자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천리안: aem 하이텔 34713 나무누리 satia
부디피어 인터넷: gobaoou@buddhapia.co.kr

만화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노끈과 밧줄과 쇠사슬을 말안장과 함께 끊어버리고



이 할 원

누굴 찾아 오셨죠?
응!
어... 여기 김선생님 아니세요?
마... 맞습니다만
지금 김선생님은...
앗! 사무실에...
안니! 순삼이 어찌 된 거야?
좀... 그렇게 됐어
답답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실은 어제 저녁 어느집 문앞에 이삿짐을 쌓아놓고 온식구가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야
모든 속박을 끊어 버리고 두려워 하지 않고 짐작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그런데 물어 봤더니 전세 계약 을 하고 이사를 왔는데
전세금 받은 사람이 그 사이에 집을 팔아 먹고 도망해 버려서 거리가 나 없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네 집을 내 준 거란 말야?
모든 속박을 끊어 버리고 두려워 하지 않고 짐작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그럼 자네 짐사람 하고 애들 은?
저가도 넉넉한 곳은 못되지만 어떡해... 그 쪽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네 정말...
안됐으면 몰라도 보고 서는...
김서방!
자... 장인 어른...
장인이고 뭐고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남 도우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세 가지씩 앞가림을 해야 잡아
은세상 고민거리 자네가 다 떠 말을 작정 이야? 자네가 그렇게 잘났어!
풀 갖지 않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말야
모욕과 학대와 부속에도 노하지 않고 견디어 내는 사람은 인내력 강한 군대를 가진 이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당장 집으로 와서 애들 데리고 가 일겠어!
그렇게 심한 말을 듣고도 아무 령지도 않은 거야?
노여워 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규범을 지키고 청정하며 최후신(最後身)을 지닌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다음 생부터는 생사윤회가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이름을 마지막 몸(最後身)이라 한다

독자 기고



강주수

(부산불교신문회 수화강사)

부러운 일본의 장애인복지

“건널목마다 턱이 없었고 공공시설마다 점자시설 장애인도 살만한 나라”

현대불교 100호 독자소리 100호

환경운동 '가정서 부터'

30대 가정주부다. 앞으로 물기가 있는 음식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찰에 가서 공양을 해보면 하지도 버릴 것이 없이 깨끗하게 공양을 한다. 모든 주부들이 사찰의 음식문화에 배워 가정부터 실천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더욱 깨끗해질 것이다. (김미린·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석굴암에 균열이라니

자랑스런 문화유산 석굴암에 균열이 생겨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석굴암이 천년 만인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으면 한다. 미래역사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장경희·경기도 군포시 당동)

본사마다 寺報 있었으면

최근 핵방 아시아에서 '사보(寺報)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 몇몇 본사급 사찰에서는 사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스님들이 사보가 신도들 상호간의 소식 교환은 물론 대외적인 문서 포교지도 역할 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한용호·충남 천안시 영성동)

진관스님 즉각 석방을

진관스님의 안기부 연행소식에 충격이 크다. 결집없이 인권노동운동 등을 펼치는 스님의 모습은 진솔하고 그치지 않았다. 그런 스님이 문인정부 시대에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구속된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본다. 스님의 즉각적인 석방을 간절히 촉구한다. (김원식·전북 익산시 신봉동)

회암사지 날로 황폐화

우리 마을에는 고려때 전국 본찰인 회암사지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소홀해 날로 황폐화되고 있어 늘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보금자리였던 이 사지를 불교계가 앞장서 복원의 노력을 기울여길 바란다. (전귀현·경기도 양주군 회암리)

산사에도 쓰레기 몸살

요즘 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우리가 몇년도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음료수병이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진성·충북 증원군 영정면)



독자 사진

개천속 부도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송계사 매표소 부근 개천에 방치되어 있는 부도의 모습이다. 이 부도의 모습은 사찰을 참배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하루빨리 제 모습으로 복원되길 바란다. (이중수·서울시 중구 목동동)

독자 만평

석굴암 균열...
(김영은·서울시 중로구 필판동)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성북리 393-1
대원사
☎ 0331-262-0606

기도·공부·휴양하실 곳

위치: 지리산, 경남 하동군 약양면 형계봉 정학사
특징: 1인1실, 육식완비, 숙식제공
비용: 월25만원
연락처: (0595)83-2933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약수암에서는 일상의 굴레를 벗고 편안히 수양을 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 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며 부처님의 말씀 함께 하실분은 아래의 문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3명
▷입주조건: 입주금 2~3천만원
▷연령: 30세 이상
▷시설: 1인1실(목욕시설 완비)
▷위치: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약수암
▷문의처: 0348)52-4801, 53-4801

누구나 성공사업 할수있는 성공사업

“부처님의 가피력은 불가사의 하여라”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는 큰 회사에서 성실하고 경륜있는 거사님, 보살님 모셔서 큰 사업 하시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3가지 기도

“자본없이 할수 있는 사업”
“중생에게 유익을 주는사업”
“전망이 있는 사업”

공무원을 퇴직한 후 사업에 실패하여 2년의 방황끝에 위의 3가지 화두로 기도하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지 34개월이 지난 지금 상무에 승진하여 안정된 직장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상섭 거사입니다.

사업경력, 공무원(군간부), 기업체간부, 자영업 경력이 있으신 거사님, 보살님 본 사업에 동참하세요. 성공하시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주시고
※ 위로는 보리시음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에 이득되게 하라

상담: 02)3469-0881~4 (김상섭거사)

불교전통의식범음·범패강좌안내

불교전통의식의 저변확대와 신심고취 향상을 위한 불교전통의식 강좌를 개설하오니 뜻있는 스님과 재가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다음 -

- 개강일시: 1996년 10월 18일(이후 수시모집)
- 교육시간: 화·금요일 6시부터
- 교육과목

- ▷상주권공 및 작법 - 바라 - <천수·사다라니·요잡>
- ▷작법(나비춤) - <도량계·다계·사방요신>
- ▷시련·대령·관육·신중작법·관음시식
- ▷사물다루는 법·기초의식·상단 중단·불공 강의

본 교육원에서는 일본제자로서 뜻있는 스님은 누구든 환영하며 다년간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시고 계신 오 송강스님께서 직접지도하며 졸업 후 시험을 통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강원: 841-1154 (오후 6시 이후 전화요망)
핸드폰: 011-258-03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송강범음강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1996년 10월 21일 ~ 11월 19일
- 개강일시: 1996년 11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장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